

개 회 사

오늘 우리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기쁜 날을 맞이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등을 환하게 밝히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혜와 복덕을 두루 갖추신 부처님께서 그 지혜와 복을 일체중생에게 골고루 전하여, 일체중생을 성불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지 모르는 채 길고 긴 어둠 속에서 어리석게 살아온 중생들에게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밝혀주셨으며, 중생의 마음을 힘들게 하던 무거운 짐을 덜어주어 편안하게 해 주셨고, 중생 모두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등을 밝히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밝은 빛으로 이끌어주신 자비하신 부처님께 드리는 고마운 마음과 함께 우리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하고 부처님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등불은 모두 다 꺼졌지만 가난한 여인이 어렵게 밝힌 등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는 ‘빈녀(貧女)의 일등(一燈)’ 설화가 전해주듯 마음으로 밝히는 연등의 의미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져온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불교가 이 땅에 전해진 삼국시대 이래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며 우리 민족의 중요한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해온 연등회가 소중한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게 되는 뜻 깊은 경사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밝히는 등불이 세상을 더욱 환하게 비추며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우리 불교계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종교 · 지역 · 세대 · 빈부간의 갈등을 넘어 화합된 세상을 가꾸어가는 화쟁(和諍) 결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삶에 지친 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짊어지며, 함께 피안에 이를 때까지 기꺼이 그들의 도반이 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에 중요한 대통령 선거를 맞으며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정치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와 정진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우주 법계에 가득 찬 유정 무정의 중생들은 결코 홀로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음은 이미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일깨워주셨습니다. 중중무진으로 끝없이 펼쳐지는 인연의 고리에 함께 이어진 존재인 우리들 사이에 적과 동지가 따로 있고, 서로 미워하며 갈등하고 상처를 입히며 원력을 허비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를 버리는 순간 참다운 내가 드러나 세상에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히는 이 등불이 나의 작은 욕심을 버려 내 이웃들과 더불어 행복해지며,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불기2556년 5월 19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장 자승